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광주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7대 장정희 회장 이임식 및 제 58대 이재욱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 행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제78차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됐다. 이재욱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초석으로 삼아 초심과 경성의 자세를 끝까지 지키고, 공약

들을 반드시 실천해 광주지방변호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제6회 흥남순변회사 인권상 시상을 비롯해 법원·검찰·교도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직원 4명과 우수사법경찰관으로 선정된 3명에 대한 표창도 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동신대, 나주시 겨울방학 영어캠프 성료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나주시 겨울방학 영어캠프'를 성료했다. (사진)

최근 열린 '나주시 겨울방학 영어캠프' 수료식에는 나주시 안상현 부시장, 동신대 전진 부총장 등 약 2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주시 관내 초등학생 88명을 대상으로

11박 12일 동안 진행됐으며, 아이들의 글로벌 리더십 향상과 소통 및 협업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우주를 주제로 한 교과목 프로그램, 나주알기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며 영어권 문화를 체험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장우권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장 선임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장우권(사진) 교수가 국내 최대 대학도서관체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회장을 선임한다.

장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제18차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이어 제10대 회장으로 선임됐으며 임기는 25년 3월부터 27년 2월까지다.

국회도서관 광주권 유지추진위원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인 장 교수는 "국·공립, 사립, 전남대 등 3대 대학도서관협의회가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대학도서관이 지식정보서비스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우리나라 320여개 대학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는 대학도서관단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외국인 학생 K-푸드 체험 진행

동강대 한국어학당(학당장 이상희)은 최근 교수연구동 융복합 쿠킹클래스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미식(美食)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진) 한국어학당 연수생 71명이 참여한 이번 '명절 음식 쿠킹 클래스'는 외국인 학생들이 K-푸드를 직접 만들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유학생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생들은 글로벌요식조리 제빵과 이봉선·오명진 교수의 지도 아래 궁중잡채와 송편 등을 만들었고,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을 찾아 김장과 떡 매치기를 체험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대, 외국인 유학생과 설 명절 행사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과 설 명절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국제협력처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과 함께 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명절에 타국에서 보내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덕담과 정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몽골에서 온 나몽 유학생은 "학교의 배려로 친구들과 함께 명절을 외롭지 않게 보냈다"고 말했다.

이기표 국제협력처장은 "이국 생활의 외로움을 느끼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학업에 더욱 전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전남문화재단 임직원 모금

제주항공 유가족 돕기 성금 전달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사진) 임직원 일동이 자발적 모금을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지원 성금'을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단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가족,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134만 원 성금을 모금,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해 지역사회와 이웃들 모두가 큰 슬픔에 잠겨 있다"며 "작금처럼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자발적인 모금을 거쳐 성금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남문화재단은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출력(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생생정보 스페셜(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친절한 선주씨(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930	30 신데렐라 게임(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 좋아좋아	30 잘 먹고 잘사는 법 플러스
11	05 동행(재)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15 헬로킴즈 공학교실(재) 30 주니토니 이야기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40 영화가 좋다(재)	00 12 MBC 뉴스 25 오늘N(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내모세모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2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전국을 달린다(재) 35 남도지오그래피(재)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브레드와 월크의 세계여행(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시사건건	00 TV 유치원 30 스튜디오 K 스페셜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	10 글로벌 도네이션쇼 W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도시락(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우기	50 신데렐라 게임	05 친절한 선주씨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결혼하자 맹꽁아	30 동물은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45 세차JANG	00 폭 쉬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45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5 우리 집 금슬아지(재)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나라는 가수 인 독일 스페셜		50 열린예술무대 뒤란
12	25 생로병사의 비밀(재)		15 웰컴 투 스포츠 55 친절한 선주씨(재)	50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 스페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8:1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	18:30 교육대기획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19:20 고향민국
07:00 예교와 친구들 수리수리 넘버랜드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왔다 내 손주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13:45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4:30 EBS 평생학교 2교시	〈사바이 사바이 태국 -11월이 아름다운 이유〉
07:45 메탈카봇S 경찰의 귀환	15:1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21:35 한국기행
08:00 당동당 유치원	15:55 블록스	〈도란도란 모락모락 1부 만두 먹을까? 국수 먹을까?〉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6:10 당동당 유치원(재)	21:55 PD로그
08:3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16:30 페파 피그	22:45 EBS 다큐프라임
08:50 레인보우 버블럼	16:40 마사와 곰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20 자이언트 펭TV	16:55 뽀롱뽀롱 뽀로로(재)	24:0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09:40 PD로그	17:10 명탐정 피트4	
10:30 한국기행(재)	17:40 드래곤 길들이기: 아홉 왕국의 전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3일(음 1월6일 癸卯)

<p>36년생 균형 감각과 체계적인 준비가 절실하다. 48년생 함께할 때는 즐겁겠지만 일단 벗어나면 공허해진다. 60년생 투철한 의지로서 역량을 발휘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 72년생 불만이라면 빨리 청산해야 마땅하다. 84년생 불만이 올 수 있으나 머지않아 해소되리라. 96년생 다른 것은 분류하고 비슷한 것은 모으자. 행운의 숫자 : 38, 75</p>	<p>42년생 집착할수록 손해이니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나은 것이다. 54년생 용기보다는 경험에서 우리나라 지혜가 요구된다. 66년생 절제대로 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78년생 중저대하고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 이르렀다. 90년생 공허한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자. 02년생 액땀하는 셈치면 수월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66</p>
<p>37년생 목적이식을 분명히 해야만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49년생 격리되거나 이동할 수도 있는 기운이 다분하다. 61년생 소중히 여겨 왔던 것으로부터 얻는 바가 있으리라. 73년생 마무리가 시원치 않다면 가치가 하락한다. 85년생 난해했던 부분이 시원스럽게 풀리는 열쇠를 갖게 된다. 97년생 고비를 넘길 줄 알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49, 93</p>	<p>43년생 쉽게 지나치기 쉬운 곳에 진귀함이 있도다. 55년생 중요한 일이니 확실하게 해두어야 후환이 없다. 67년생 지켜보고 있노라면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79년생 진정한 자제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옳다. 91년생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의미가 있도다. 03년생 실익을 잘 따져서 값진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5, 92</p>
<p>38년생 흥한 것은 많고 기한 것은 적어 보인다. 50년생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세이다. 62년생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자. 74년생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86년생 계획이 거대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98년생 빨리 끓는 물이 쉽게 식는 법임을 알고 의연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0, 57</p>	<p>44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전환하라. 56년생 조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면역하기 힘들 것이다. 68년생 대리 만족을 할 운세에 놓여 있다. 80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92년생 대소가 아니라 핵심 유무의 문제이니라. 04년생 교체해 주어야만 진부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2, 99</p>
<p>39년생 겉모습에 현혹된다면 상당한 낭비를 부를 것이다. 51년생 대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응하는 것이 옳다. 63년생 지리멸렬함을 지나 성취의 장에 이르게 된다. 75년생 형식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까지 갖춰야겠다. 87년생 전반적인 관리에 세심한 공을 들여야 할 때다. 99년생 자기 짤에 자신이 넘어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0, 78</p>	<p>45년생 증진전화와 같은 난국에서 전화위복하리라. 57년생 과거의 사정에 기반한 인식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69년생 이채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81년생 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사시키게 될 것이다. 93년생 산 넘어 산이니 단단히 각오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05년생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30, 88</p>
<p>40년생 유대 관계가 절실할 필요할 때이다. 52년생 화합은 부를 일으키며 불화는 부를 파멸시킬 것이니라. 64년생 해묵은 것들은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니 과감하게 청산함이 합리적이다. 76년생 적용하기에는 미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88년생 진력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 00년생 부담 없이 처리해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37, 59</p>	<p>46년생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가 있겠다. 58년생 흥기를 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70년생 사리에 밝은 이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82년생 발상이 막연하다면 제삼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94년생 원칙만을 따진다면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 06년생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었을 때 무난하게 처리 된다. 행운의 숫자 : 48, 61</p>
<p>41년생 시작은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희열로 가득 차리라. 53년생 석연치 않다면 중단해도 무방하다. 65년생 파종을 했다 하더라도 손질이 가야 결실이 이르리라. 77년생 신중하게 처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89년생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국세이다. 01년생 여러 발을 할 필요가 없다. 행운의 숫자 : 12, 81</p>	<p>47년생 집착을 떨쳐 버리고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59년생 최선을 다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71년생 무르익어 가고 있으니 만사형통하리라. 83년생 행동에 장애를 줄 만한 일이 일어난다. 95년생 적당히 햇볕을 쬐면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07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행운의 숫자 : 26, 87</p>